영유아 사교육과 장기 학습역량 : 놀이 중심과 조기학습 중심의 이분법을 넘어

박건령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부회장(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2026년 4월 1일 교육부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유아 사교육 논의는 개별 가정의 비용 부담 문제를 넘어 아동 발달권과 공교육 신뢰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이 글은 최근 5년 국제 주요 학술저널에 게재된 연구와 국내외 정책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놀이 중심 교육과 조기학습 중심 교육 가운데 무엇이 장기 학습역량에 더 유리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핵심 결론은 단순하다. 조기 선행학습이 오래가는 학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뚜렷하지만, "놀이만으로 충분하다"는 답도 과학적이지 않다. 장기 학습역량을 키우는 것은 유아 주도 탐색, 교사의 의도적 질문과 비계 설정, 언어와 개념이 풍부한 놀이, 짧고 정교한 명시적 지도가 결합된 내용 충실형 놀이 기반 교육이다. 부모에게 전달되어야 할 공공 메시지는 '빨리 배우는 아이'가 아니라 '오래 배우는 힘을 가진 아이'를 키우는 교육을 신뢰하자는 것이다.

1 서론

영유아 사교육은 더 이상 일부 가정의 선택이나 선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교육부가 발표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은 '4세 고시' 혹은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사교육기관의 입학시험 및 서열화, 한국어 사용 제한, 장시간 주입식 수업과 신체활동 제한 등의 유아 발달권 침해 양상을 정책 문제로 명명하였다. 같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례 본조사에 앞서 실시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서 2024년 7~9월 3개월간 유아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 원, 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은 33.2만 원, 참여율은 47.6%였으며, 5세 참여율은 81.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 수 역시 2019년 615개에서 2025년 814개로 늘어났으며, 일명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54.5만 원으로 나타났다.[1)]

이 수치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느새 집단적 불안과 경쟁의 구조 속에서 과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 비용이 실제로 아이의 장기 학습역량을 키우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정부가 영유아 사교육 경감 정책을 설계할 때 단순히 비용이나 시장 규모만이 아니라, 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공 메시지를 함께 제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부모들과 정책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놀이 중심 교육과 조기학습 중심 교육

1) 교육부 보도자료(2026. 4. 1.).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

중 무엇이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은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아교육의 목적, 공교육의 역할, 부모의 불안,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 교사 전문성의 문제를 모두 품고 있다. 이를 더 정교하게 질문한다면 "아이의 오늘을 지키면서도 내일의 학습을 오래 지탱하는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일 것이다.

이 글의 결론은 조기학습 중심 교육과 놀이 중심 교육 중 어느 한쪽의 승리를 선언하는 데 있지 않다. 최근 국제연구의 결과는 과도한 조기 선행학습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놀이가 곧 학습이니, 교사는 물러서서 유아를 지원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놀이 중심주의도 지지하지 않는다. 장기 학습역량을 키우는 교육은 놀이와 학습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유아의 주도성을 살리면서 교사의 의도적 중재, 풍부한 언어 상호작용, 의미 있는 개념 탐구, 초등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함께 설계하는 교육이다.

2 무엇을 장기 학습역량이라 부를 것인가

먼저 '장기 학습역량'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흔히 빠른 한글 해득, 조기 영어 노출, 연산 선행, 교재 진도와 같은 지표를 성과처럼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좁은 의미의 조기 학업기술만으로는 유아가 초등학교와 그 이후의 학교생활에서 오랜 시간 배우고, 실패를 딛고 다시 시도하고,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장기 학습역량은 유아기의 단순한 수행 점수나 빠른 학습 속도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와 문해 능력, 이야기를 구성하고 질문을 만들어 가는 개념적 이해와 탐구 능력, 과제를 지속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실행기능과 자기조절 능력, 또래와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정서 역량, 그리고 초등학교 이후에도 학습 과정에 참여하고 그것을 끈기 있게 지속해 나가는 배움의 성향과 태도의 결합이다. 유아기에 중요한 것은 "이미 얼마나 앞서 배웠는가"보다 "앞으로 계속 배워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얼마나 단단하게 형성되었는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부모에게 던져야 할 정책 메시지도 달라져야 한다. 유아가 만 5세에 얼마나 많은 글자를 읽을 수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림책 속 이야기를 듣고 읽으며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가, 모르는 단어를 질문할 수 있는가, 이야기를 듣고 다음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가,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의 현상을 탐색하고 탐구하는가, 친구와 놀이 속 규칙을 조율하며 협상할 수 있는가, 실패했을 때 다시 시도할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능력은 사교육 시장의 마케팅이 강조하는 즉시 보이는 수치의 성과는 아니지만, 영유아기 이후의 학습을 오래 지속하게 하는 더 깊은 토대이자 기반이 되는 힘을 의미한다.

3 놀이와 학습의 스펙트럼 재정의

정책 논쟁에서 '놀이'와 '학습'은 자주 서로 반대편에 놓인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연구에서 비교되는 교육적 접근은 '놀이'와 '학습'을 서로 배제적인 범주로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핵심은 놀이와 학습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과 교육의 목표에 맞게 어떤 조합을 설계할 것인가이다. 필자가 분석한 최근 5년간 국제 상위저널에 게재된 학술논문 12편과 국내외 정책보고서 4편[2]의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공통된 핵심도 여기에 있다. 중요한 질문은 놀이와 학습 중 "어느 쪽이 더 좋은가" 혹은 "어느 지점이 더 진보적인가"가 아니다. 보다 중요한 질문은 유아의 발달과 교육의 목표에 비

2) 해당 내용과 관련된 참고문헌은 분량상 본문 말미에 별도 제시함.

[그림 1] 유아교육 내 교수·학습 접근 스펙트럼의 이해

출처: 필자 작성.
자료: 최근 5년(2021~2025년)간 게재된 국제 학술논문과 국내·외 정책보고서를 검토한 필자의 문헌리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구체적인 참고문헌 목록은 각주 2 참조 요망).

추어 어떤 교수-학습 조합이 장기 학습역량의 축적에 가장 타당한가이다. 놀이와 학습의 스펙트럼 위에 놓인 유아교육의 교수-학습 접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스펙트럼의 연속선에서 최근 국제연구의 근거기반 결과들이 가장 일관되게 주목하는 지점은 가운데 두 영역인 성인의 안내가 있는 놀이(guided play)와 구조화된 놀이기반 교육과정(playful curriculum)이다. 다시 말해, 놀이 속에서 유아의 주도적 탐색을 살리되, 교사가 교육내용과 개념을 의식하여 환경과 활동을 설계하고, 질문과 언어를 통해 놀이를 더 깊은 배움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는 놀이가 유아가 주도하는 활동의 단순한 나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개념과 교육내용이 놀이의 형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접근을 뜻한다. 놀이기반을 유지하면서도 교육적 목표, 교육내용의 연계와 누적성, 교사의 전문적 판단이 함께 작동할 때 구조화된 놀이기반 유아교육의 힘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를 본고에서는 '내용중심형 놀이기반 유아교육(Content-Rich Play-Based ECE)'이라 부르고자 한다. 이 접근은 조기 반복학습의 과잉을 피하면서도, 교육내용이 비어 있는 놀이주의의 한계 역시 의도적으로 넘어서려는 교육적 접근이다.

4 최근의 국제연구 결과기반 메시지

가. Guided play는 놀이의 자율적 동기와 교사의 지적인 안내를 함께 살린다

Skene 등(2022)의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은 성인의 안내가 있는 놀이(guided play)가 직접교수(direct instruction)보다 초기 수리력, 도형지식, 과제전환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고, 자유놀이(free play)보다 공간어휘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3] 이 결과는 "놀이가 좋다"는 단순 명제가 아니라, 놀이가 특정한 학습과 개념 이해로 깊어지려면 유아의 자발성과 교사의 적절한 안내

〈표 1〉 최근 5년(2021~2025년)간 게재된 국제연구 및 국내·외 정책보고서의 수렴점과 정책적 의미

연구 유형	최근 국제연구 및 정책보고서의 결과	정책적 시사점
직접 비교 연구	성인의 안내가 있는 놀이(guided play)와 내용 있는 놀이학습은 특정 인지영역, 언어영역에서 자유놀이 또는 직접교수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음[3]	놀이와 학습의 양자택일보다 교사의 의도적 안내와 내용 설계가 중요함
놀이기반의 구조화된 교육과정 연구	의도된 구조화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발달에 적합한 교육내용 조직은 기관 간의 질 격차를 줄일 수 있음[4),5)]	공교육은 "놀이" 표어를 넘어, 내용충실형 교육과정을 제시해야 함
장기추적 연구	생애 초기에 획득한 점수기반 효과는 소멸할 수 있으나 학교참여, 진학, 행동, 사회정서 경로의 효과가 남을 수 있음[6),7),8),9)]	성과 평가는 영유아기 점수기반 성과보다 학습 지속성과 학교 전이의 질을 포함해야 함
기제 연구	유아기에 획득한 실행기능, 자기조절, 언어, 사회정서 역량이 유아기 이후의 학습을 지탱함[10),11)]	유아기 사교육 관련 정책 메시지는 선행학습 억제보다는 장기 학습역량의 토대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자료: 최근 5년(2021~2025년)간 게재된 국제 학술논문과 국내·외 정책보고서를 검토한 필자의 문헌리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구체적인 참고문헌 목록은 각주 2 참조 요망)

가 결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유아가 자발적 흥미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더라도, 교사가 유아 놀이의 어떤 측면을 관찰하고 어떤 질문을 던지며 어떤 언어를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놀이의 교육적 깊이는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유아가 블록을 쌓는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반복적 쌓기 놀이일 수도 있고, 높이, 균형, 대칭, 비교, 공간에 관한 어휘와 개념을 경험하는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활동일 수도 있다. 차이는 교사가 "더 높이 쌓아 보자"라는 단순한 피드백에서 상호작용을 멈추는가, 아니면 "어떤 블록을 아래에 놓으면 무너지지 않을까", "방금 만든 다리의 가운데가 왜 무너졌을까", "네가 만든 것과 친구가 만든 것의 모양은 어떻게 다를까"를 질문하는가에 있다. 유아교육의 전문성은 바로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나. 구조화된 교육과정은 조기주입식 교육과 다르다

한국에서는 '구조화'라는 말이 곧 주입식 교육이나 선행학습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인가가 핵심임을 보여준다. Størksen 등(2023)의 노르웨이 무작위 통제실험은 놀이기반 유아교육 맥락에서 구조화된 놀이기반 교육과정(playful learning curriculum)이 수학 영역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4] 물론 효과가 모든 영역에서 자동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놀이기반 교육 안에서도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분명할 때 특정 발달 영역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Rege 등(2024)의 현장 실험연구는 더 중요한

3) Skene, K., O'Farrelly, C. M., Byrne, E. M., Kirby, N., Stevens, E. C., & Ramchandani, P. G. (2022). Can guidance during play enhance children's learning and development in educational contex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93(4), 1162–1180. https://doi.org/10.1111/cdev.13730

4) Størksen, I., Rege, M., Solli, I. F., ten Braak, D., Lenes, R., & Geldhof, G. J. (2023). The playful learning curriculum: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4, 36–46. https://doi.org/10.1016/j.ecresq.2023.01.015

함의를 제공한다. 기존의 비구조적 교육 관행에 구조화된 교육과정을 도입했을 때 유아의 수학 능력, 언어 능력, 실행기능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고, 특히 기초 질 수준이 낮았던 기관에서 그 효과가 더욱 컸다.[5] 이는 한국에서도 공교육의 대안이 '놀이를 더 많이'가 아니라 '놀이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더 잘 설계하는 것'이어야 함을 뜻한다. 구조화는 아이를 책상 앞에 묶어두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연령 및 발달에 맞는 탐구 주제, 반복과 변형이 있는 놀이 자료, 풍부한 대화, 소집단 활동, 유아의 말과 생각을 되돌아보는 회고와 기록의 구조 역시 구조화된 교육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

다. 초기 성취점수의 상승이 장기효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장기추적 연구들은 유아기 교육의 효과가 표준화 시험점수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Durkin 등(2022)의 테네시주 Pre-K 연구는 초기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았고, 3~6학년 성취도와 일부 행동지표에서 불리한 결과까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6] 그러나 이 연구결과를 "유아교육은 효과가 없다"는 식의 성급한 결론으로 단순하게 읽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더 중요한 해석은 유아교육 확대 자체만으로 장기효과가 보장되지 않으며, 교육내용, 교수전략, 초등학교와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초기 이득이 사라지거나 일부 결과에서 역전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반면 Amadon 등(2022)의 오클라호마주 털사(Tulsa) 지역 장기추적 연구와 Gray-Lobe 등(2023)의 보스턴(Boston) 추적 연구는 공공 preschool 경험이 결석 감소, 유급 감소, 상급 과목 수강, 대학진학, 졸업, 징계 감소와 같은 이후의 교육경로 지표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7),8)]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효과가 반드시 시험점수의 장기 상승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즉, 유아교육의 장기효과는 시험점수보다 학교참여, 학업 지속성, 자기조절, 사회정서 안정과 같은 간접 경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ierman 등(2025)의 Head Start Research Based, Developmentally Informed (REDI) 장기추적 연구도 같은 방향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적 중재가 고교 성적이나 졸업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정서 및 행동문제를 줄이고 사회정서 역량과 부모참여를 통한 간접적 효과는 확인되었다.[9)] 결국 오래 가는 학습의 핵심 경로는 유아기에 더 많은 학업진도를 나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질서, 곧 자기조절, 정서적 안정, 탐구하며 배우는 성향, 사회적 관계의 안정성을 형성하는 데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Rege, M., Størksen, I., Solli, I. F., Kalil, A., McClelland, M. M., ten Braak, D., Lenes, R., Lunde, S., Breive, S., Carlsen, M., Erfjord, I., & Hundeland, P. S. (2024). The effects of a structured curriculum on preschool effectiveness: A field experi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s, 59(2), 576-603. https://doi.org/10.3368/jhr.0220-10749R3

6) Durkin, K., Lipsey, M. W., Farran, D. C., & Wiesen, S. E. (2022). Effects of a statewide pre-kinder garten program on children's achievement and behavior through sixth grade. Developmental Psy chology, 58(3), 470-484. https://doi.org/10.1037/dev0001301

7) Gray-Lobe, G., Pathak, P. A., & Walters, C. R. (2023). The long-term effects of universal preschool in Bost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8(1), 363-411. https://doi.org/10.1093/qje/qjac036

8) Amadon, S., Gormley, W. T., Claessens, A., Magnuson, K., Hummel-Price, D., & Romm, K. (2022). Does early childhood education help to improve high school outcomes? Results from Tulsa. Child Development, 93(4), e379-e395. https://doi.org/10.1111/cdev.13752

라. 실행기능, 자기조절, 언어가 오래 가는 학습의 기반이다

Ahmed 등(2021)의 연구는 유아기 실행기능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실행기능을 거쳐 성인기 교육 성취와 충동조절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였다.[10] Colliver 등(2022)은 유아기의 자유놀이 경험이 몇 년 후의 자기조절력을 예측한다고 분석하였다.[1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유아기 놀이경험과 자기조절력이 학습의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향후 학업 수행과 고등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임을 보여준다.

실행기능과 자기조절은 읽기, 쓰기, 셈하기와 분리된 비(非)학업적 능력이 아니다. 유아가 교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고, 틀렸을 때 다시 시도하고, 친구와 협력하는 모든 순간에 작동하는 학습의 운영체제이다. 또한 어휘, 구어,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문해력과 지식 학습을 지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따라서 장기 학습역량을 키우는 유아교육은 문자와 수를 외면하는 교육이 아니라, 문자와 수가 더 깊고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언어적, 정서적, 인지적 기반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5 한국 부모에게 필요한 근거기반 메시지

영유아 사교육 경감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부모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에게 "하지 말라"고만 말하는 정책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부모가 듣고 싶은 것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선택해도 되는지에 대한 근거 있는 확신이다. "지금 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사교육 시장의 메시지보다 더 신뢰로운 공공의 메시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빠른 학습이 좋은 학습은 아니다"이다. 조기 한글, 조기 영어, 조기 연산이 단기 수행을 앞당길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후의 깊은 독해력, 수학적 사고, 자기주도학습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아이가 배움의 속도를 경쟁으로 경험하고, 틀리고 실수하는 일을 두려워하며, 부모와 교사의 평가에 맞추어 배우게 될 때, 학습은 호기심의 활동이 아니라 외부 압력에 반응하는 행동이 된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자는 뜻이 아니다"이다. 유아에게도 언어와 문해, 수리 추론, 과학 탐구, 예술, 신체, 사회정서에 관한 풍부한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다만 그 내용은 초등학교 교과의 축소판이나 선행 진도표가 아니라, 유아의 몸과 감각, 말과 상상, 관계와 놀이를 통해 경험되어야 한다. 좋은 유아교육은 가벼운 교육이 아니다. 오히려 유아의 발달 방식과 속도에 맞추어 지적으로 깊은 경험을 설계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세 번째 메시지는 "좋은 놀이는 방임이 아니다"이다. 놀이가 학습으로 이어지려면 교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수적이다. 교사는 유아를 단순히 놀게 두거나 유아의 놀이를 중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놀이 속에서 드러나는 유아의 생각을 읽어내고, 상황과 맥락에 적절한 단어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료를 적

9) Bierman, K. L., Heinrichs, B. S., Welsh, J. A., Jones, D. E., & Crowley, D. M. (2025). How a preschool intervention affected high school outcomes: Longitudinal pathways in a randomized-controlled trial. Child Development, 96(3), 1236-1249. https://doi.org/10.1111/cdev.14235

10) Ahmed, S. F., Kuhfeld, M., Watts, T. W., Davis-Kean, P. E., & Vandell, D. L. (2021). Preschool executive function and adult outcomes: A developmental cascade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57(12), 2234-2249. https://doi.org/10.1037/dev0001270

11) Colliver, Y., Harrison, L. J., Brown, J. E., & Humburg, P. (2022). Free play predicts self-regulation years later: Longitudinal evidence from a large Australian sample of toddlers and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9, 148-161. https://doi.org/10.1016/j.ecresq.2021.11.011

절히 배치하고, 갈등을 배움의 기회로 바꾸며, 놀이가 더 깊은 개념으로 확장되도록 돕는 전문가이다. 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하려면 기관은 "오늘 아이가 즐겁게 놀았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놀이 속에서 어떤 언어, 개념, 관계 맺기, 자기조절 능력이 자랐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메시지는 "발달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사교육은 교육이 아니다"이다. 교육부가 문제로 제시한 것은 단순한 사교육 이용 자체가 아니라, 시험을 통한 비교와 서열화, 한국어 사용 제한, 장시간 주입식 수업, 그리고 보도자료가 "신체활동 구속"으로 표현한 발달권 침해적 운영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유아기 발달 조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관행이 될 수 있다. 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더 긴 수업시간이 아니라 더 질 높은 상호작용, 더 충분한 움직임, 더 풍부한 언어 경험, 더 깊이 생각하고 탐구할 시간, 더 안정적인 관계이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공교육도 더 분명해져야 한다"이다. 사교육을 줄이라고 말하면서 공교육이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면 부모는 다시 사교육 시장으로 향하게 된다. 공교육은 놀이 중심이라는 표어만이 아니라, 언어와 문해, 수리 추론, 과학 탐구, 예술, 신체, 사회정서 영역에서 유아가 어떤 핵심 경험과 개념을 누적해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유아기 공교육의 역할은 교육내용이 비어 있는 놀이시간의 돌봄이 아니라, 놀이를 기반으로 탐구가 확장되는 질 높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

6 정책 방향

가. 공적 메시지를 '조기 선행'에서 '장기 학습역량'으로 전환한다

영유아 사교육 대응의 첫 단계는 국가와 학계가 같은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만 6세 초등 입학 이전에는 무엇을 빨리 끝내야 하는가"가 아니라, "유아기 교육적 경험이 초등 입학 이후의 학습으로 지속되려면 유아교육은 어떤 토대를 제공해야 하는가"를 공공 메시지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부모교육 자료, 캠페인, 기관 상담, 교사 연수의 핵심 문장도 이에 맞추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글을 더 빨리 떼는 것'보다 '그림책을 즐기고, 이야기를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이후 더 오래 가는 문해력의 출발점임을 강조해야 한다.

나. 유해한 조기학습 관행과 허위 및 과장 광고를 규제한다

영유아 사교육 규제는 시장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 발달권을 침해하는 관행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레벨테스트와 서열화, 발달에 맞지 않는 장시간 인지교습, 허위 및 과장 광고, 부모의 불안을 자극하는 "늦으면 안 된다"식의 마케팅은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특히 조기학습의 효과를 과학적 근거 없이 장기 성취처럼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광고 근거의 공개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다. 유아교육과정을 내용충실형 놀이기반으로 정교화한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놀이 중심의 의미는 '교육내용이 약한 교육'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 방식과 속도에 맞게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교육'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 문서와 현장지원자료는 언어와 문해, 수리 추론, 과학 탐구, 예술, 신체, 사회정서 영역에서 유아가 경험해야 할 핵심 경험과 개념을 더 명료하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교육기관의 유형 및 교사양성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교사가 유아의 놀이 속 어떤 장면에서 어떤 개념을 짚어야 하는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추가할 수 있는지, 무엇을 관찰하고 기록해야 하는지

에 관한 교육 전문성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라. 평가는 조기 수행 속도가 아니라 넓은 학습의 토대를 보아야 한다

유아기 평가의 중심은 글자를 얼마나 빨리 읽는가, 연산을 얼마나 많이 앞서 수행하는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휘와 이야기 구성, 개념의 탐구와 이해, 주의 지속력, 충동 조절력, 또래 협력, 신체활동, 정서 표현, 놀이 속 문제해결력을 관찰할 수 있는 기준이 교사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유아의 배움을 부모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찰 기반 평가가 부모에게 공유될 때, 부모는 "우리 아이가 지금 무엇을 배웠는지"를 점수나 진도표가 아니라 발달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마.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한다

유아기 교육의 효과가 지속되려면 초등학교가 그 기반을 이어받아야 한다. 유아기에서 형성된 언어, 탐구, 자기조절, 놀이기반 협력 경험이 초등 1학년에서 단절되면, 부모는 다시 사교육에 의존하며 선행학습에 기대게 된다. 유아교육과 보육, 그리고 초등교육을 잇는 이음교육은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이벤트식 행사의 확대가 아니라, 유아기 경험을 초등의 문해, 수학, 과학 탐구, 사회정서, 예술 및 신체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교육과정 연계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7 결론

영유아 사교육 논의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이다. 하나는 아이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유아기의 놀이와 움직임, 관계 맺기와 휴식, 그리고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을 지나치게 앞당겨진 선행학습과 반복 훈련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 반작용으로 교육내용과 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놀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전자는 유아의 발달권을 침해할 수 있고, 후자는 공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최근 국제연구의 근거기반 결과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길은 쉽지 않지만 분명하게 보인다. 유아는 놀아야 한다. 그러나 그 놀이는 말이 풍부하고, 생각을 요구하며, 관계를 조정하고, 개념을 확장하고, 실패와 재시도를 품는 놀이여야 한다. 유아는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 배움은 시험과 서열, 장시간 앉아 있기, 조기 진도 경쟁이 아니라,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언어 역량, 개념적 이해와 탐구 능력, 자기조절, 사회정서 역량을 키우는 배움이어야 한다.

교육자로서 필자가 학부모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아이의 오늘을 빼앗는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이의 오늘을 단지 즐거운 방임의 시간으로만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좋은 유아교육은 아이가 오늘을 충분히 살아가도록 하면서, 그 오늘 속에서 내일의 배움을 오래 지탱할 힘을 길러 주는 교육이다.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경감 정책과 공교육 혁신은 바로 이 원칙 위에서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표 2〉 영유아 사교육 경감을 위한 핵심 정책 메시지와 실행 방향 제안

정책 영역	실행 방향	학부모에게 전달할 메시지
공적 인식 개선	장기 학습역량 중심의 부모교육, 캠페인, 상담자료 개발	“빨리 배우는 것보다 오래 배울 힘이 중요합니다.”
사교육 관리	레벨테스트, 서열화, 장시간 인지교습, 과대 광고 규제 및 허위 광고 처벌 기준 확립	“유아의 발달권을 해치는 방식은 교육이 아닙니다.”
공교육 내실화	내용충실형 놀이기반 교육과정과 영역별 핵심 경험 제시	“놀이는 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위한 방식입니다.”
교사 전문성	관찰, 질문, 비계설정, 소집단 지도, 부모소통 중심 연수 강화	“좋은 교사는 놀이를 방해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놀이를 깊게 만드는 전문가입니다.”
평가와 소통	어휘, 자기조절, 협력, 개념탐구, 몰입을 보여주는 관찰기록 공유	“진도의 속도보다 아이가 생각하고 조절하고 관계 맺는 힘을 보아야 합니다.”
유-초 연계	만 5세 – 초1 교육과정의 연속성 확보 및 문해, 수리, 탐구, 사회정서의 점진적 확장	“초등 준비는 선행학습이 아니라 유아-초등교육 전이의 질에서 시작됩니다.”

출처: 필자 작성.

참고문헌

- Ahmed, S. F., Kuhfeld, M. W., Watts, T. W., Davis-Kean, P. E., & Vandell, D. L. (2021). Preschool executive function and adult outcomes: A developmental cascade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57(12), 2234-2249. https://doi.org/10.1037/dev0001270
- Amadon, S., Gormley, W. T., Claessens, A., Magnuson, K., Hummel-Price, D., & Romm, K. (2022). Does early childhood education help to improve high school outcomes? Results from Tulsa. Child Development, 93(4), e379-e395. https://doi.org/10.1111/cdev.13752
- Bierman, K. L., Heinrichs, B. S., Welsh, J. A., Jones, D. E., & Crowley, D. M. (2025). How a preschool intervention affected high school outcomes: Longitudinal pathways in a rand omized-controlled trial. Child Development, 96(3), 1236-1249. https://doi.org/10.1111/cdev.14235
- Colliver, Y., Harrison, L. J., Brown, J. E., & Humburg, P. (2022). Free play predicts self-regulation years later: Longitudinal evidence from a large Australian sample of toddlers and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9, 148-161. https://doi.org/10.1016/j.ecresq.2021.11.011
- Durkin, K., Lipsey, M. W., Farran, D. C., & Wiesen, S. E. (2022). Effects of a statewide pre-kindergarten program on children's achievement and behavior through sixth grade. Developmental Psychology, 58(3), 470-484. https://doi.org/10.1037/dev0001301
- Ernst, J. R., & Reynolds, A. J. (2021). Preschool instructional approaches and age 35 health and well-being. Preventive Medicine Reports, 23, 101498. https://doi.org/10.1016/j.pmedr.2021.101498

참고문헌

- Gray-Lobe, G., Pathak, P. A., & Walters, C. R. (2023). The long-term effects of universal preschool in Bost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8(1), 363-411. https://doi.org/10.1093/qje/qjac036
- Lee, J. Y., Wright, C. A., Golinkoff, R. M., & Hirsh-Pasek, K. (2023). Another case of the theory to practice gap: South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5, 385-395. https://doi.org/10.1016/j.ecresq.2023.07.008
- Rege, M., Størksen, I., Solli, I. F., Kalil, A., McClelland, M. M., ten Braak, D., Lenes, R., Lunde, S., Breive, S., Carlsen, M., Erfjord, I., & Hundeland, P. S. (2024). The effects of a structured curriculum on preschool effectiveness: A field experiment. Journal of Human Resources, 59(2), 576-603. https://doi.org/10.3368/jhr.0220-10749R3
- Skene, K., O'Farrelly, C. M., Byrne, E. M., Kirby, N., Stevens, E. C., & Ramchandani, P. G. (2022). Can guidance during play enhance children's learning and development in educational contex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Child Development, 93(4), 1162-1180. https://doi.org/10.1111/cdev.13730
- Størksen, I., Rege, M., Solli, I. F., ten Braak, D., Lenes, R., & Geldhof, G. J. (2023). The playful learning curriculum: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64, 36-46. https://doi.org/10.1016/j.ecresq.2023.01.015
- Vaisarova, J., & Reynolds, A. J. (2022). Is more child-initiated always better? Exploring relations between child-initiated instruction and preschoolers' school readiness. Educational Assessment, Evaluation and Accountability, 34, 195-226. https://doi.org/10.1007/s11092-021-09376-6

- 김은영·구자연·김지원·김혜진·김재철·김종근·조숙인·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2024).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2024). A new vision for high-quality preschool curriculum. National Academies Press. https://doi.org/10.17226/27429
- OECD. (2025a). Reducing inequalities by invest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b78f8b25-en
- OECD. (2025b). Reducing inequalities by invest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Korea - Country note. OECD. https://gpseducation.oecd.org/CountryReports?primaryCountry=KOR